

광주·전남 취업자 절반은 50세 이상

고령화 여파 청년 취업자 추월 지난 10년간 고령층 6%p 상승 취업자중 50~60대 압도적 1위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고령화 여파로 고용 부문에서도, 청년 취업보다 5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여'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광주와 전남은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2%포인트(p) 가량 상승했다.

광주는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에서 60~79세 남성 비중이 18.8%로 2015년(12.7%) 대비 6.1%p 증가했다. 80세 이상 남성 비중도 1.5%p 오른 2.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여성 비중도 60~79

세(6.2%p), 80세 이상(2.1%p)이 모두 늘었다.

지역 내 60세 이상 인구는 19세 이하(남성 17.7%·여성 16.5%)를 넘어선지 오래다. 향후 출생률 저하 및 의료 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수명 증가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60~79세 남성은 전체 인구 중 25.7%, 여성은 27.9%를 차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40~59세 중장년층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이다. 또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남성(1.9%p), 여성(3.7%p) 모두 증가폭이 컸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 부문에서도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그나마 남의 지역 청년층마저 낙후한 인프라와 양질

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층의 이탈은 연령별 취업자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광주시 취업자 수는 77만 4000명으로 2014년(73만 2000명) 대비 4만 2000명 증가했지만, 전체 취업자 중 50~59세가 19만 7000명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고 60세 이상(16만 3000명·21.3%)의 비중도 높았다. 반면 사회 초년생인 15~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9%에 불과했고, 30대도 18.4%에 그쳤다.

전남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8%로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50~59세(23.9%), 40~49세(18.1%), 30~39세(12.3%), 15~29세(9.9%) 순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보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대회' 장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기여 인정

광주신보보존재단(광주신보)은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수상은 광주신보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신보는 그동안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보증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고물가 장기화 및 소비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염규승 광주신보 이사장은 "광주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을 지키는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최근 광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아, 다문화 청소년 사회·경제적 자립 팔 걷었다

22~23일 '하모니움 기아데이' 기아 경기·오토랜드 광주 견학

기아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아는 "22~23일 광주에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1기 교육생과 함께하는 기아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하모니움'은 조화를 의미하는 '하모니'와 새싹이 틈다를 의미하는 '움트다'의 합성어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런칭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다문화 청소년 교육생을 대상으로 IT 기술, 영상 편집, 조정 기술 등 직무 경험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아는 교육생들이 기아 브랜드 경험을 통해 동료 학생들과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아 데이 행사를 마련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교육생들은 지난해 프로야구 우승 팀인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의 경기를 응원하며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배우고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을 견학하며 산업 현



장 분위기를 체험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해 10월 토크 콘서트와 야외 음악회 등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공감대 형성을 위한 '하모니움 페스티벌'을 열었다. 올해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 상무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바

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미래 세대"라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25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반기는 올해 4~8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상반기 땅값 상승률 광주 0.35%·전남 0.14% '전국 최하위'

전국 땅값 28개월 연속 상승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방별 동향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의 자가 상승률은 0.35%로,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전남의 자가 상승률도 0.14%로 유일하게 하락한 제주(-0.38%)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 지가는 1.05% 상승했으며, 작년 하반기

(1.15%)보다는 상승 폭이 0.1%p 축소됐다.

상반기 땅값 상승 폭은 수도권(1.49%→1.40%)과 지방(0.58%→0.44%)에서 모두 작년 하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반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1.73%)이었다. 경기(1.17%), 부산(0.70%)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상반기 서울 강남구 땅값이 2.8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땅값 상승률은

0.348%로, 비대상지역 상승률(1.106%)보다 0.758%포인트 낮았다.

분기별로 전국 땅값은 지난해 3분기 0.59%까지 오른 뒤 4분기 0.56%, 올해 1분기 0.50%로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2분기 상승률은 다시 0.55%로 확대됐다.

전국 땅값은 2023 3월 상승 전환한 뒤 28개월 연속 올랐으나 다만 국토부는 최근 하락 전환한 시군·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지방은행 최초 수입기업 무역대금 결제 지원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광주은행은 24일 "지방은행 최초로 수입기업의 무역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는 최근 무역 결제가 기존의 신용장(L/C) 중심에서 해외송금(T/T) 방식으로 전환되는 트렌드에 발맞춰 출시한 것으로, 광주은행이 수입기업들을 대신해 해외 수출기업에 무역대금을 먼저 송금한 뒤, 수입기업은 정해진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수입신용장을 통한 거래보다 수수료 부담이 낮고,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만기 설정이 자유로워 기업들이 상황에 맞춰 자금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결제 시점과 상환 시점이 분리됨으로써 수입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효과적이며, 기업들이 기한 내에 거래처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어 신뢰 관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서비스 이용 대상은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수입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석 광주은행 외환사업부 부장은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는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수입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방은행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수출입 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S효성그룹 수해 복구 성금 1억원 기탁

HS효성그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성금은 수재민 지원과 생활 터전 복구, 도로·하천 등 인프라 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모금에는 HS효성,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참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모든 분들이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HS효성은 지난 4월 영남 산불, 2023년 7월 집중호우, 2023년 4월 강릉 산불, 2022년 8월 집중호우,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휴가철 쓰고 남은 외화 개인 거래 주의하세요

앱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금감원 범죄자금 세탁 이용 주의보

해외여행에서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간 외화거래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최근 피해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여행 후 남은 미 달러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구매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세탁이었고, A씨에게 아내 명의로 보냈다는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외화 판매자의 계좌를 검찰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의 계좌로 속여 이체를 유도한 뒤, 자신은 현금 형태의 외화를 가져가는

식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외화거래를 이용해 범죄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주거나 옷돈을 주겠다는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빠른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경우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2~3개월간 계좌 지급 정지나 거래 제한, 외화 판매대금 강제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를 판매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높은 환율이나 옷돈을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거래 플랫폼의 자체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자 본인인 만나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 고가의 중고 명품 및 상품권 등도 자금세탁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지역민 돕기 힘 보탠다

담양 등 6곳 법인세 2개월 연장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군 등 전국 6개 지역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인 담양군, 산청군, 합천군, 서산시, 예산군, 가평군 등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 총 4100여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 연장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한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피해지역민 편의를 위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도 신설한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무서 등을 찾아 납세자 세정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또 폭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한 성금 1000만원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역대 최소

지난달 신규 공인중개사 개업자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7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협회가 201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7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90.45 (+6.68)
↑ 코스닥	809.89 (-3.67)
↑ 금리(국고채 3년)	2.467 (+0.009)
↓ 환율(US D)	1369.60 (-10.20)
〈오후 4시 37분 기준〉	